



## 윤석민 '사구'에 날아간 KIA 가을야구

에이스 윤석민이 끝내 '롯데'라는 숙제를 풀지 못했다.

지난 2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3회까지 홈집을 데 없는 피칭을 했다.

단 한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고 5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롯데 타선을 묶었다. 하지만 4회 2사에서 '사구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손아섭과 박준서를 유격수 라인드라이브와 1루수 앞 땅볼로 돌려세운 뒤 조성환과의 승부. 첫 타석에서 조성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던 윤석민이었지만 이번에는 몸쪽 승부를 하다가 사구를 허용하고 말았다. 첫 주자를 내보낸 뒤 맞은 상대는 홍성흔이었다.

공교롭게도 2010년 윤석민의 '사구 트라우마' 시작점이 된 홍성흔과 조성환이 타자와 주자로 선 것이다. 결과는 홍성흔의 2루타였다. 강민호의 연속 2루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0-2가 됐다.

5회 1사, 이번에도 사구가 실점의 빌미가 됐다. 김문호를 사구로 내보낸 윤석민은 문규현의 2루타와 박준서의 중전안타로 또 2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오고 말았다.

3회까지 완벽피칭 하고도

4회 2사에서 사구 ... 2실점

5회도 사구 뒤 2실점 강판

롯데에 '4강 티켓' 넘겨줘

윤석민은 앞서 삼성과의 등판에서 8회까지 노히트 노런을 하며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거뒀다. 그 기세는 롯데와의 경기 초반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조성환의 몸쪽으로 향한 공 하나에 윤석민이 다시 또 무너지고 말았다.

앞선 롯데전 두 번의 등판에서 8이닝 11실점을 기록했던 윤석민은 세 번째 도전에서도 5이닝 4실점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2패만을 안았다. 롯데는 더 큰 무대를 위해 윤석민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았다.

10승을 눈앞에 두고 또 팀의 실낱같은 4강 희망을 걸고 섰던 마운드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에이스 윤석민. 결국 KIA 팬들의 진한 아쉬움 속에 2012시즌 4강 마지막 티켓은 롯데의 품에 안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관중 700만 시대 ... 야구, 문화가 되다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

입장수입 600억 '홀런'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관중 700만 명 시대를 개척한 프로야구가 입장수입에서도 '홀런'을 때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관중 현황과 입장 수입을 보면 2012 프로야구는 2일까지 704만542명의 관중을 동원했고 입장 수입으로 623억3949만28원을 벌어들였다.

입장수입 600억원을 돌파하기는 1982

년 출범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9전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고 금메달을 딴 이래 프로야구는 흥행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해마다 100억원 가까이 입장수입을 늘려왔다.

2008년 249억원이던 입장수입은 2009년 338억원, 2010년 41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5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입장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각 구단이 홈구장의 전체 좌석 수를 줄인 대신 가족석·연인석 등 프리미엄 좌석

을 늘렸고, 그에 발맞춰 입장료를 올렸음에도 팬들이 꾸준히 야구장을 찾은 덕분에 입장수입에서도 팽창을 지속했다.

구단별로는 LG 트윈스가 126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1위를 달렸고 두산베어스(122억원), 롯데 자이언츠(111억원), SK 와이번스(85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해보다 무려 42%나 늘어난 41억원을 입장수입으로 챙겼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삼성 라이온즈도 작년 대비 38%가 증가한 43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MVP 후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간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12 팔도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후보들. 왼쪽부터 넥센 박병호, 넥센 나이트, 삼성 장원삼, 한화 김태균.

/연합뉴스

## 광주 FC, 대전에 또 '발목'

1대 1 비겨 강등권에 승점 1점차 ... 스플릿 시스템 2무1패

전남도 강원과 0-0

광주의 승리는 없었다.

광주 FC가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34라운드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1-1 무승부에 그쳤다.

선제골을 가져오는 등 광주가 경기 내내 공격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승리를 결정지을 한방이 터지지 않으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비장 끝에서 맞이한 스플릿 시스템 3경기 전적은 2무1패가 됐다.

시작은 좋았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박기동이 대전의 골문을 열었다.

중원에서 넘어온 공을 받은 중앙파울로가 특유의 스피드로 대전 왼쪽 진영으로 치고

올랐다.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중앙에 있던 박기동에게 공을 밀어주었고, 공을 잡은 박기동이 침착하게 슈팅을 날리며 시즌 4호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선제골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반 12분 대전 케빈의 머리를 맞은 공이 수비수 빈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풀지 못했던 김동섭이 전반 30분에 날린 슈팅도 골대를 비껴갔다. 전반 33분 문전 경합 상황에서는 이승기의 슈팅이 골라인을 앞에 두고 막히면서 노골이 됐다.

박희성이 든든히 수비라인을 지키는 가운데 후반에도 광주의 공세가 계속됐다.

후반 9분 두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김동섭이 이번에는 헤딩골을 시도했지만 대전 골키퍼 김선규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후반 13분과 37분 나온 중앙파울로의 눈 스톱 슈팅과 기습 슈팅도 모두 대전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그들 B 5위 전남과 7위 강원의 경기도 0-0 무승부로 끝나면서 광주는 6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오는 6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예정된 광주의 35라운드 경기는 상주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는다. 오는 21일 성남과의 홈경기까지 광주는 전력 재 정비 시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FIFA 랭킹 25위

스페인 1위·독일 2위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 3일(한국시각) FIFA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0월 세계 랭킹에서 랭킹포인트 776점을 얻어 25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세계랭킹 27위였던 한국은 지난달 우즈베키스탄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 원정에서 2-2로 비겨 13점의 랭킹포인트를 추가해 순위를 끌어올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818점)이 전담과 똑같은 23위를 유지했고, 호주(702점)는 지난달 월드컵 예선에서 2연패를 당해 무려 9계단이나 떨어진 34위로 밀렸다. 한국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상대인 이란은 4계단 하락한 58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스페인(1605점)은 변함없이 세계랭킹 1위를 유지,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 연속 정상상을 내달렸다. 독일과 포르투갈이 세계랭킹 2, 3위로 스페인의 뒤를 이은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4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KIA '27년 숙원' 박지훈이 풀까

KBO, 2012 프로야구

MVP·신인왕 후보 발표

박지훈 유일하게 올라

2012 프로야구 MVP와 신인왕을 다룰 후보가 발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종합 일간지, 스포츠 전문지, 방송사 간사로 구성된 2012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및 최우수신인선수 후보 선정위원회가 3일 MVP 후보 4명, 최우수신인선수 후보 4명을 확정했다.

넥센 공수의 핵 박병호·나이트가 최고의 선수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게 됐고, 나이트와 다승 1위(16승)를 다룬고 있는 삼성 장원삼과 일본에서 복귀한 한화 김태균도 MVP 후보로 선정됐다.

신인왕 후보에는 KIA 투수 박지훈, 넥센 톱타자 서건창, 삼성 포수 이지영, LG 좌완 최성훈이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단국대를 졸업한 박지훈은 두드러진 배짱을 앞세워 KIA 필승조로 활약하며 3.53의 방어율로 2승3패2세이브 10홀드를 기록했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서건창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방출의 설움을 딛고 뒤늦게 야구에 뜻을 피운 화제의 인물이다. 이용규에 이어 도루 2위, 득점 8위에 올라 있다.

투표는 한국야구기자회 회원사와 각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페넨트레이스 종료 후 사전 투표로 진행된다.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선수가 수상자가 되며, 과반수 이상 득표한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간 결선 투표가 진행



행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2층)에서 열린다. 이날 2012 시즌 1군 및 퓨처스리그 각 부문별 1위 선수와 우수 심판 위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인왕 후보 KIA 박지훈



베이징의 사라포바

러시아의 사라포바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 오픈 2라운드에서 소니아 크리스티에를 상대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